

고환율·고유가 우려에 실물경제 ‘먹구름’

“성장률 0.1%p ↓·물가 0.2%p ↑ 전망”

“일시적 충격...반도체 영향 미미” 관측

국내 금융시장이 4일 이란 사태 장기화 관측에 종일 패닉 상황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근래 가파르게 올랐던 주가가 일순간 폭락세로 돌아섰고,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실물경제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다만,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세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중등발 지정학적 리스크 여파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

△유가가 60달러대 전망했는데 이미 80달러 넘어...100달러 전망도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점은 ‘유가 상승→물가 상승→금리 상승→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전이 경로다.

유가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금리가 오르고, 재정적자 부담이 확대되는 동시에 가계 이자 부담도 가중되는 ‘도미노’가 벌어질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지연 전망이 무게가 실리면서 금융시장 충격도 한층 커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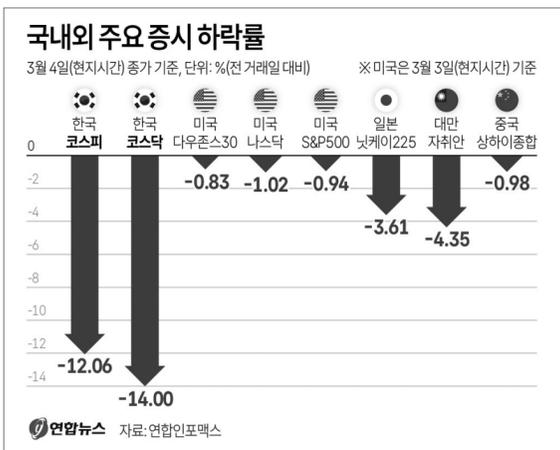
당장 고유가 장기화 시 우리나라 성장률은 최소 0.1~0.2%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 수입국인 만큼 유가 변동성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0.2%p 낮춰질 수 있다는 게 지배적 분석이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유가가 현재 수준이 머무르면 성장률을 0.1%p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정부 재정정책으로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아직은 잠재적 위협 요인”이라고 말했다.

물가에 관해선 “원화 약세가 동반되면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0.3%p 또는 그 이상의 상방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은도 지난 2024년 5월 경제전망 당시 중등 지역 분쟁이 상당히 악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규모가 확대될 경우 그



해 경제성장률이 0.2%p 하락하고 물가 상승률이 0.3%p 상승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전망 때도 러·우 전쟁이 길어지고 중등 갈등이 심화할 경우 이듬해 경제성장률이 0.1%p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이 0.2%p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제 유가는 기존 전망치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유가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비블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혼란이 지속될 경우 브렌트유가 최고 100달러에 이

를 것”이라며 “전 세계가 잠재적인 원유 공급 차단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연평균 유가가 10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성장률이 0.3%p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2%대 성장이 요원해지는 셈이다.

△코스피 역대 최대 폭락...자산 효과 기대에 찬물

환율 급등과 주가 급락에 따른 실물경제 대에 찬물

환율 급등과 주가 급락에 따른 실물경제 대에 찬물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총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날보다 10.1원 오른 1476.2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이날 오전 10시34분께 1484.2원까지 뛰어 미국발 관세 충격이 거셌던 지난해 4월 9일의 장중 1487.6원이나 수급 불균형이 확대됐던 지난해 12월 24일의 장중 1484.9원과 비슷한 수준에 달했다.

이날 0시22분께 1505.8원까지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일(장중 최고 1500.0원) 이후 처음 1500원을 찍기도 했다.

이란 사태로 위험 회피 심리가 확대되면 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 선호가 높

아진 점이 가파른 환율 상승의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중등 상황에 따라 환율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외국인 자금이 급속히 이탈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환율 상승이 더 열릴 수 있다”며 “앞으로 트럼프 발인 강도, 미 지상군 투입 여부 등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도 “유가 쇼크가 장기화하면 전 세계 고물가, 고금리, 경기 위축이 가시화된다면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래적인 고환율 흐름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내수 회복세가 둔화하면 그만큼 경기 반등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란 사태가 중장기적인 경기 하락을 촉발할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중등발 충격이 일시적인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이 중간 선거를 앞둔 가운데 전쟁 장기화에 필요한 정치적 명분이나 경제적 이익 모두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연방뉴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이 4일 강원 태백 한마음신협에서 농촌·소형조합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농촌·소형조합 현장 속으로

취임 첫 행보로 충북·강원·경북 등 방문 임직원과 간담회...제도 개선 과제 청취

신협중앙회는 고영철 신협 회장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취임 첫 주 일정을 농촌 및 소형 회원조합 현장 방문으로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 행보는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소형조합의 목소리를 우선 청취하고, ‘농소조합 성장 지원’과

‘재무상태조정 정상화 지원’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고 회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3일 충북 옥천의 한수신협을 시작으로 경주 문의 신협과 청원신협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어 4일에는 강원 태백 한마음신협과 흥천신협, 원주세브란스신협을 찾았

으며, 5일에는 경북 봉화신협·영주 알찬신협·예천한일신협·김천신협을 방문

해 조합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를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고영철 회장은 “신협의 경쟁력은 현장 조합의 지속가능성에서 출발한다”며

“농촌·소형조합과 직장조합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중앙회가 정확히 진단하고, 재무상태조정 정상화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

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협중앙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수립한 건의사항을 토대로 △농소조합 맞춤형 성장 지원 방안 마련 △재무상태조정 정상화 지원 체계 정비 △현장 중심의 지도·지원 체계 고도화 등 후속 과제를 구체화해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오는 6일 고영철 회장 취임식과 기존 임원 이임식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빚투’ 32조...한도 소진에 신용거래 일시 중단

‘빚투’(빚내서 투자) 금액이 3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이 신용거래 용자 신규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

한국투자증권은 4일 오전 8시부터 신용 거래용자 신규 매수 및 신규거래대수 신규 매도를 일시 중단했다. 재계 시점은 미정이다.

이는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된 영향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 업자는 신용공여 시 그 합계액이 자기자 본의 1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NH투자증권은 5일부터 신용거래용자 신규 매수를 일시 중단한다. 역시 재계 시 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한투자증권도 전날 신용공여 한도 소 진이 예정됐다면서 “한도 소진 시 예약중 권 담보대출 및 신용융자 서비스가 중단 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고 공지했다.

신용거래용자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값지

않은 금액으로,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3일 기준 32조804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고치로 코스피가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하면서 증시로 들어오기 위해 대기하는 자금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날 들어 이란 사태 여파로 코스피가 속절없이 급락하면서 빚투 금액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용융자는 대출을 지렛대 삼아 고수익을 꾀할 수 있지만, 주식이 대출 담보로 잡히기 때문에 주가 하락 시에는 담보 가치 부족으로 보유 증권이 강제로 처분(반 대매매)돼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계좌 내 담보 비율 가치의 급변 으로 반대매매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 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안내했다.

연방뉴스

중동발 쇼크에 ‘안전자산’ 채권도 속수무책

금리 연일 오름세...한은 메시지로 진정됐다 다시 약세

미국이 대이란 공격으로 터진 중등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친 충격은 전종적 안전 자산으로 취급되는 채권도 피해 가지 못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보다도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전망이 약세장을 주도한 탓이다. 채권은 안전자산인 동시에 물가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정금리 자산 성격도 있다.

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는 대체로 상승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3bp(1bp=0.01%p) 오른 3.223%에, 10년물 금리는 3.8bp 상승한 3.632%로 장을 마쳤다.

이날 오전 한국은행의 구두 개입성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채권시장은 장중 강세를 띠기도 했지만 다시 약세장으로 전환 마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중등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고 “환율, 금 리가 정상수치 등 국내 펀더멘탈(기초체 령)과 괴리돼 과도하게 변동하는지 면밀 히 살펴보고 시장 심리가 한 방향으로 쏠 리지 않도록 필요시 정부와 협조해 적기 에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등 사태 직후 장이 열렸던 전날 국고 채는 1년물을 제외하고 모든 만기 구간에 서 금리가 두 자릿수 급등했는데 이날도 약세장을 이어간 것이다. 채권 금리와 가 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 부상하면서 환율과 유가가 크게 오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물가 상승 압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춰 채권시장에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원유 수입국인 한국이 유가 상승으로 받을 타격은 더 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국의 원유 수입 물량 중 70%가 중등산이고 그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온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1원 오른 1476.2원이었다. 환율은 3개월 연속 오름세로 1420원대에서 1470원 대로 수직 상승했다.

서울 채권시장은 지난달 말 비둘기파적 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로 이후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면서 간만에 강세장을 누렸지만 불과 며칠 만에 중 등 사태를 변수로 떠난 채 됐다. 연방뉴스

신협, 미성년자 전용 ‘아이모아통장’ 출시

최대 300만원까지 최고 3% 우대이율 적용

신협중앙회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금융 이용을 지원하는 ‘아이서비스’와 함께,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전용 입출금통장 ‘아이모아통장’을 4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아이모아통장은 하루만 예치해도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으로, 우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최고 연 3% (조합별 상이)의 금리를 제공한다.

미성년자 전용 상품인 만큼 가족 결합 우대 혜택을 적용해 부모가 조합원이거나 부모의 합산 요구불예금 평잔 요건을 충

족하면 추가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만 19세 미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자 금융 수수료를 면제해 금융 이용 부담을 낮췄다.

가입 절차도 간소화했다. 부모는 은행 크(모바일 앱)나 리온브랜치(모바일 앱)를 통해 비대면으로 자녀 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아이서비스’와 연계해 자녀의 금융 활동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입출금계좌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은 물론 계좌 조회, 이체 한도 설정, 비밀번호



재설정 등 주요 업무를 모바일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용돈 미션’과 ‘용돈 조르기’ 기능을 도입해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며 금융 활동을 경험하도록 설계했다. 자녀가 저축과 지출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올바른 금융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신협 관계자는 “아이모아통장은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자녀 통장을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의 금융 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협은 5일부터 아이모아통장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은행크와 리온브랜치를 통해 자녀 명의 아이모아통장을 개설한 고객 가운데 선착순 3000명에게 캐시백을 제공한다.

이벤트 종료 후 선착순 1000명에게는 2만원, 이후 2000명에게는 1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